

나주형 주민 공유공간 '들樂날樂' 뜬다

개인 소유 공간 활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맛난 공간소' '숲 아래집' '빛가람놀이터'
시, 3곳 지정... 지속적으로 확산키로

개인 소유의 민간영역 공간이 주민과 주민 사이를
주인과 마을을 잇는 공유공간으로 재탄생해 주
목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다시면 동곡리 소재 '맛난공간소'
를 비롯한 3곳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지정하고, '공
유공간 들樂날樂 지정식 및 현판식(사진)'을 개최
했다.

이번에 '공유공간 들樂날樂'으로 지정된 곳은 '다
시면 맛난 공간소', '남평읍 숲 아래집', '빛가람동
빛가람놀이터'이다.

현판식에는 김용욱 나주시 총무국장, 나주시 의
회 김영덕, 허영우, 지차남, 황광민 의원을 비롯해
임형욱 다시면 주민자치위원장, 귀농·귀촌인,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 나주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
해 조성된 3곳의 '공유공간 들樂날樂'은 개인 소유
의 공간을 주민 및 마을과 공유해 다양한 공동체 활
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사업 공간 확장을 위해 내년도 역시 지



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공익
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공유공간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단체 대상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확대해 주민 공유
공간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동 등을 지속해 나간다

는 방침이다.

김용욱 나주시 총무국장은 "공유공간 들樂날樂이
지역 내 지속적으로 확산돼 나주형 공유공간을 통
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앞당겨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은 2018년 크리스마스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앞두고 트리 점등식과 소원지 쓰기 행사를 가졌다.

국립나주박물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소원지 쓰기 행사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2018년 크리
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최근 2018년 크리스마스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앞두고 트리 점등식과 소
원지 쓰기 행사를 가졌다.

트리 점등 기간에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대
형 크리스마스 트리(소원나무)에 소원지를 달아
기원할 수 있다.

또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 '풍요의 땅
전라-천년의 시간을 걷다' 관람도 가능하다.

특별전은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여
죽림사 괘불(보물 제1279호), 윤두서 자화상(국
보 제240호) 등 국보 4건과 보물 23건을 포함한

100여건의 명품 문화재가 한 자리에 선보인다.

또 박물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겨울방학
특별공연 '어린왕자' (빛가람 챔버 오케스트라) 공
연을 22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에게 동화
책과 함께하는 클래식과 애니메이션 연주 등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화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온 누리에 환한 빛을 전하듯 주변
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새해에도 모든 사람
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시 "사랑의 땀감으로 올 겨울 훈훈하게 보내세요"

26가구에 50t 전달

나주시는 관내 기초생활보
호대상자, 독거노인 등을 대
상으로 사랑의 땀감 나누기 사
업을 추진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26
가구에 총 50t 분량 땀감을 전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지역
숲 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잡
목을 땀감으로 만들어 겨울철
소외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이
다.

올해 전달된 땀감은 총 50t 분량으로,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음
면·동 행정차량 등으로 직접 배달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땀감 나



나주시 관계자들이 지역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등에 전달할 땀감을 차량에 싣고 있다. <나주시 제공>

눔에 도움을 준 나주시산림조합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땀감 나눔은
잡목 수거에 따른 산불 예방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 10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
장 이복실)는 최근 나주문화
센터교육장에서 저소득 조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
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여
명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 1천포기를 박스로 나눠
서 백미(10kg) 147포대와 함
께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 147세대에 각각 전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
을 위한 나눔 행사가 동참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손가정의 따뜻한 겨울
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복실 여성단체협의회장도 "손자·손녀와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제과기능사 자격증반 수료식...직접 만든 '사랑의 빵' 전달도

나주시가 최근 농촌 여
성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했던 국
가 공인 제과기능사 자격 취
득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 농
업인 등 주민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 농업기술센
터 2청사에서 외부강사를 초
청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제과 기본원리 이해 등 국가 공인 자
격증 취득을 대비한 이론 및 소규모 창업에 위한 기
본 교육을 비롯해 나주 배로 만든 '배 만주' 외 27종
류의 제과 실습에 참여했다.

농업인교육관 1층 조리실습실은 베이커리 가공
시설을 갖춰, 제과 재료 계량에서부터 반죽, 성형,
굽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실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은 실습을 통해 완성된 다양한 종류의
제과를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및 마을 경로당에 전달
하는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체 수강생 중 14명이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에 합격하는 쾌거가 있었다"면서 "향후 실기시험까
지 합격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Asia Culture International Photo Contest
Prize Exhibition

2018.12.11. - 12.25.

www.asiaphoto.kr

아시아문화 국제 사진공모전 수상작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라운지**

주제전
**아시아문화원류 아카이브사진전
[아시아-in]**

특별초대전
**임종진 북녘사진전
"사는 거이 다 똑같디요"**

주최/주관 (사)아시아문화, (주)아는컴퍼니 후원 아시아문화원
Asia Culture Institute